

# 구전설화 <호랑이 눈썹>의 한일 비교

박연숙\*

民間説話<虎の眉>は、貧乏な男がすかしてみると人の正体が分かる虎の眉を獲得して人の姿に見える女と再婚して新しい運命を開拓したという話である。長年我が民族に伝承されてきたが、内容以外は殆んど知られていない。そこで、本稿ではその内容的特色、分布、原話、伝播、そして内容の変化など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そのため、同類型と見られる日本の昔話<狼のまつ毛>と比較する方法を用いた。

韓国説話は虎の眉を核心のモチーフとして内容の変化によって、運命の取り替え型、輪廻型、烈女型、虎退治型に分けられる。日本説話は狼のまつ毛という変異があり、輪廻型、烈女型は見られず、隠遁型、就職型、婚姻型などが検討される。分布は中国、インドなど広い地域にわたる。原話はインドの説話に求められ、それが韓国へ、そして日本へ伝播された。伝来過程では仏教的な輪廻転生の思想は相当衰退し、人間らしい本性を持つ重要性を強調する内容となっている。それに韓国説話の中には夫婦の相性の大切さを表すものもある。

キーワード : 虎の眉、狼のまつ毛、前生後生の姿を見る呪宝、インドの伝承、運命の取り替え、人の本性  
(호랑이 눈썹, 이리 속눈썹, 전생내생을 비추는 주보, 인도전승, 운명바꾸기, 사람의 본성)

## 1. 선행 연구 및 역사적 자료

우선 경북 월성군 오동면에 구전되는 이야기를 든다.

- (1) 가난한 남자가 아이는 많고 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죽으려고 백인재에 갔더니 백 명이 모여야 무사히 재를 넘을 수 있다며 사람들이 모여 있다.
- (2) 남자는 개의치 않고 올라가서 흰 노인(이야기 도중에 산신령 호랑이로 구연됨)을 만나지만 자신을 잡아먹지

---

\* 계명대학교 일본어문학과

않는다. 그 이유를 묻자 노인은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  
다며 눈썹을 하나 빼서 재를 넘어오는 사람들을 보라고  
한다.

- (3) 눈썹으로 사람들을 보자 소, 말, 닭 등 짐승으로 보인다.
- (4)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고생하는 등짐장수 부부를 만났기에  
눈썹으로 살피니 여자는 사람이고 남자는 수탉이다. 서  
로 배필을 못 만나서 고생한다 싶어 재우러 집에 데리  
고 온다.
- (5) 집에 도착하여 눈썹으로 본 아내의 모습은 암탉이다.  
등짐장수 부부와 한 방에서 자다가 여자들의 잠자리를  
바꿔치고는 누명을 씌워 등짐장수와 아내를 쫓아낸다.
- (6) 남자는 등짐장수의 아내에게 일의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등짐장수가 두고 간 물건을 밀천으로 장사하여 집안을  
일군다.
- (7) 4.5년 후 남자는 전처가 생각나서 찾아 나서자 전처는  
등짐장수와 산발을 일구다가 금덩이를 주워 벼락부자가  
되어 있다.
- (8) 두 부부는 형제지간을 맺어 모두 잘 산다.<sup>1)</sup>

이야기는 말하자면 가난에 찌든 남자가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  
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호랑이를 찾아가지만 호랑이는 남자를  
잡아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남자는 사람이기에 잡  
아먹지 않고 또한 가난한 것은 닭의 탈을 쓴 아내와 살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눈썹을 뽑아  
줘서 가지와 남자는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를 얻어 살고 그의 아내  
에게는 수탉으로 보이는 짝을 찾아주었더니 모두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유사한 내용을 가진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라고 약칭한다)와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이하 『한국  
구전설화』라고 약칭한다)에서 16편을 추려낼 수 있었다.<sup>2)</sup> 우리 민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pp.184-197.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1988) 『한국구비문학대계』 전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에 11편, 임석재(1987-1993)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전21권, 평민

간에서 향유해 온 설화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소설가 김양호가 『호랑이 눈썹』의 단편으로 재창작하여 민중들에게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해학으로 풀어냈던 적도 있고, 또한 동화로도 재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설화학계의 관심은 냉담한 것 같다. 여태껏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은 한국설화를 분류한 자리에서 645-15 <호랑이 눈썹으로 본 전생 모습> 유형으로 인정한 것이 유일하다.<sup>3)</sup> 연구의 대상으로는 오히려 문학치료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sup>4)</sup> 다만 이 분야에서는 문학을 통한 인간의 심신 치료에 목적을 두었기에 분석도 가난한 부부의 이별과 조화로운 새 만남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찾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설화의 핵심 요소인 ‘호랑이 눈썹’에 관련한 신이한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국내에서 이처럼 별반 연구되지 않은 구전설화에 주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해 왔다. 본 설화도 그런 탐구의 연속인데 설화내용 말고는 정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번역된 외국설화집을 뒤져도 유사한 이야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행히 이웃한 일본의 기존유형분류연구에서 동일한 유형을 찾아내고 그 지역의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또한 뜨겁게 논쟁거리

사에 5편이 있다. 수록된 권수 등의 서지는 참고문헌에 정리해 두었다.

-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p.573. 10편의 참고자료가 실려 있다.
- 4) 정운채(2008)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계레어문학』 제14집, 계레어문학회, pp.361-397.  
정운채(2008) 「부부서사진단도구를 위한 구비설화와 부부서사의 진단요소」 『고전문학과 교육』 제15집, 고전문학교육학회, pp.191-243.  
정운채(2009) 「부부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서사와 문학치료』 제1집,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pp.305-362.  
정운채(2009) 「자유연결형 부부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과 문항분석」 『서사와 문학치료』 제2집,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pp.293-324.  
김정희(2012) 「설화 <호랑이 눈썹>과의 비교를 통해 본 영화 <헨콕>의 서사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2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pp.227-253.  
김정희(2010) 「‘배우자털치기서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 - 부부관계의 지속과 단절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66.

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근원설화나 전파문제를 다룬 몇 편의 단독연구도 입수하였다. 이제부터 그것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 설화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본설화분류에서 크나큰 업적을 남긴 이나다 고지(稲田浩二)의 「석화(昔話)타이프-인덱스」에는 109 유형번호를 달고 〈이리 속눈썹〉으로 등재해 있다.<sup>5)</sup> 분류하는 데 참고한 자료가 17편 가량 실려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찰할 것이다.

이나다는 또한 아래에 든 연구서에서 유사한 외국 자료를 들고 있다.

(1) 稲田浩二(1998) 『日本昔話通観 研究篇2 日本昔話と古典』 同朋舎、p.110.

① 『태평광기』 권460 금조부(禽鳥部) 「이상공(李相公)이 야기, (출전 당唐대 노조盧肇의 『일사(逸史)』)<sup>6)</sup>

② 『삼국유사』 「대산월정사 오류성중(台山月精寺 五類聖衆)」<sup>7)</sup>

5) 稲田浩二(1988) 「昔話タイプ・インデックス〈狼のまつ毛〉」 『日本昔話通観』 第28巻、同朋舎、pp.278-279.

6) 이상공(李相公)이 송산(嵩山)에 놀러 갔다가 병든 학을 보았는데 학이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공이 옷을 풀어헤치고 살을 찢러 피를 내려고 하자 학이 말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매우 적으니 당신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속눈썹을 뽑게 하여 그것을 가지고 동도(東都: 낙양洛陽)에 가서 눈을 대고 사람들을 보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상공이 가는 도중에 자기를 비추어 보자 자기는 말머리였다. 동락(東洛: 낙양洛陽)에 도착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개·돼지·나귀·말이었고 한 노인만이 사람이었다. 노인에게 병든 학의 뜻을 전하자 노인은 웃으며 나귀에서 내려 팔을 걸어붙이고 찢러 피를 냈다. 상공이 피를 얻어 학에게 발라주었더니 학은 즉시 나왔다. 학이 감사해하며 말했다. “당신은 곧 태평성대의 재상이 된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만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삼가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상공이 감사해 하자 학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 날아가 버렸다.(『일사』)(김장환·이민숙 외 옮김(2004) 『태평광기』 권460 학(鶴), 학교방, p.296)

7) 자장법사가 처음 오대산을 방문하여 진신(真身)을 보려고 산기슭에 움막을 지어 살았으나 이레 지나도 볼 수 없어 묘법산(妙梵山)에 가서 정암사(淨岩寺)를 지었다. 그 후에 신희거사(信孝居士)라는 사람이 집은 공주인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는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사냥을 나가서 학 다섯 마리를 발견하고 활을 쏘았더니 학은 깃털 하나를 떨어뜨리고 날아갔다. 거사가 깃털을 주워 눈에

- (2) 稲田浩二(1993) 『日本昔話通観 研究篇1 日本昔話とモ  
ンゴロイド』 同朋舎、pp.100-101.  
③ 정인섭(1927) 『온돌야화(溫突夜話)』 『중으로 변신한 호  
랑이의 속눈썹(虎坊主の睫毛)』(1917년 채집).<sup>8)</sup>

첫 번째 연구서에서는 『태평광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문헌설화를 들었고, 두 번째 연구서에서는 『온돌야화』에 실린 구전설화를 들었다. 『온돌야화』의 기록은 1917년 군위(軍威)에 사는 사공항(司空恒)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이들 자료에 실린 이야기는 이 글 모두에 소개한 오동면

---

대고 사람들을 보자 사람들은 모두 짐승으로 보였다. 고기를 구하지 못한 거사는 자기 넓적다리의 살을 어머니에게 먹였다. 출가 후 경주에서 하솔(지금의 강릉)까지 사람들을 비추어보니 대부분 사람의 모습이라 여기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길에서 만난 나이 많은 아낙에게 살만한 곳을 물었다. 그러자 아낙은 산 서쪽 고개를 넘으면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 있는데 그곳이 살만하다고 하였다. 말을 마친 아낙은 이내 사라졌다. 거사는 관음보살의 가르침임을 깨닫고 성오평(省烏坪)을 지나 자장법사가 처음 지은 움막에 들어가 살았다. 어느 날 다섯 명의 승려가 오더니 거사가 가진 가사 한 폭을 요구했다. 거사가 영문을 몰라 하자 이전에 사람을 비추어 본 그 깃털을 말한다고 했다. 거사가 깃털을 내어주자 승려는 찢어진 가사에 깃털을 댔다. 깃털은 꼭 맞았고 형겔조각이었던 것이다. 거사는 다섯 승려와 작별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다섯 성중(관음, 지장, 세지, 오백나한, 문수보살)의 화신임을 알았다. 월정사는 자장법사가 처음 움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신희거사가 살았고, 그 다음에는 범일의 제자 신의(信義)가 살았고, 그 뒤에는 수다사(水多寺) 장로 유연(有緣)이 와서 살았다. 그래서 큰 절이 되었고 절의 다섯 성중과 9층 석탑은 모두 성자(聖者)들의 자취였다.(김원중 옮김(2008) 『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4, 민음사, pp.403-405)

- 8) 어떤 나그네가 길에서 중을 만났는데 중은 모내기하는 곳을 가리키며 저기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그네는 많은 사람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중이 냉소하며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자기의 속눈썹을 뽑아주며 눈에 대어 보라고 했다. 그래서 의심하며 속눈썹을 대어 보았더니 모두가 개, 토끼, 양, 돼지 말, 소로 보이고 한 사람만 인간이었다. 중은 호랑이었다. 호랑이가 달려가자 짐승들은 도망치는데 사람인 어린아이가 낫을 들고 덤벼들었다. 호랑이는 아이를 무서워하며 달아났다. 나그네가 다시 길을 가자 그 중이 또 나타났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중은 산신령의 명령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잡아먹으러 간다고 했다. 그 가는 곳을 묻자 나그네 형의 집이고 강아지는 질녀였다. 그래서 질녀를 살릴 방법을 애원했다. 호랑이는 밤에 화장실을 가지 말고 문을 열고 불을 켜두고 있으면 죽음에서 면할 수 있다고 했다. 나그네는 그 말대로 해서 질녀를 재난에서 구했다.(鄭寅燮(1927) 『溫突夜話』 日本書院、鄭寅燮(1983) 『溫突夜話 韓國民話集』 世界民間文芸叢書 別卷、三弥井書店、pp.121-123)

의 구전 내용과 다른데 다만 ‘동물의 (속)눈썹을 눈에 대어 사람을 보면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안다’라는 모티프는 공유하고 있다.

이나다의 연구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에 그치고 다음에 드는 오카다 미쓰히로(岡田充博) 연구는 본격적인 고찰이 된다.

- (3) 岡田充博(2008) 「日本昔話「狼のまつ毛」の原話 - 『逸史』・『三国遺事』・インドの伝承をめぐって - , 『新しい漢字漢文教育』 第24号、全国漢文教育学会、pp.16-27.
- (4) 岡田充博(2011) 「睫毛と鏡-前世・来世の姿を見る呪宝 - , 『名古屋大学中国語学文学論集』 23輯、名古屋大学中国文学研究室、pp.27-39.

논문 (3)에서는 이나다가 제시한 자료에다가 『운급칠침(雲笈七籤)』(권113 상. 송대의 장군방張君房 저)에 수록된 이상공 설화를 더 들었다. 또한 구전 자료<sup>9)</sup> 및 인도 설화를 발굴하여 원화(原話) 및 전파에 대하여 가설하였다. 논문 (4)에서는 자료를 더욱 확대하여 중국의 문헌<sup>10)</sup> 그리고 새로 발견한 인도 설화를 더 보태 전파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사람을 비추어 짐승인지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주보(呪寶) 이야기의 발생지를 고찰하였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먼저 중국 문헌자료는 ‘동물의 속눈썹으로 사람을 비추어 본다’는 모티프만 일치하고 내용에는 상이를 보인다. 또한 동물의 (속)눈썹으로 작품화한 것은 드물고 구전에서는 유사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화형(話型) 즉 유형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 또는 전생내

9) 오카다가 든 구전 자료는 다음과 같다. 丁乃通(1986) 『中国民間故事類型索引』 中国民間文芸出版社. 艾伯華(1999) 『中国民間故事類型』 商務印書館.(이 자료는 Eberhard Wolfram(1937) Typen Chinesischer Volksmärchen, FFC 120, *Helsinki*의 번역본임)

10) 오카다가 든 중국 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청대의 장편백화소설 『민도별기(閩都別記)』(里人何求) 제202-203회의 삽화. ②『태평광기』 권285 환술부 「송자현(宋子賢)」(출전은 당대 두유옥(竇維鏞)의 『광고금오행기(廣古今五行記)』). ③남송 오회(吳曾)의 『능개재만록(能改齋漫錄)』 권18 「왕적조경견진신기관학도(王迪照鏡見前身棄官学道)」. ④청대 왕역(王穉)의 『추등총화(秋灯叢話)』 「고경(古鏡)」. 원매(袁枚)의 『자불어(子不語)』 권20 「경수(鏡水)」. 그리고 『서경잡기(西京雜記)』, 『포박자(抱朴子)』이다.

생을 비추는 거울인 모티프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했다.

오카다의 업적은 무엇보다 인도 자료를 발굴해낸 것인데 일본 설화에 나타나는 '짐승으로 보이는 부인과 헤어지고 사람으로 보이는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여 잘 산다'라는 모티프가 인도 설화에도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에 인도 설화를 요약하여 신는다.

- (1) 베어리 엘윈, 『바이가』: 바이가족(인도북부에 거주하는 소수원주민)의 전승. 성립연대가 불확실하지만 주인공이 차마르(Chamar, 불가촉민不可觸民) 여자와 결혼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면 힌두교가 융성하고 카스트제도가 형성한 6,7세기 전의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1)</sup>
- ① 아내와 외아들을 둔 남자가 밤낮으로 사냥을 하기에 아내와 싸움이 끊이지 않자 견디다 못해 전장에서 죽겠다며 전쟁터에 간다.
  - ② 전쟁에 임하기 전에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다고 혼잣말을 하자 마침 거기에 있던 테오 신이 듣고 까마귀로 변신하여 어떤 소녀가 요리하는 곳으로 날아가 고양이로 변해 빵을 훔쳐 가지고 와서 남자에게 준다.
  - ③ 남자는 까마귀에게 빵 조각을 나누어주고 또 거기에 온 개에게도 떼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은 후 전쟁터에 나간다.
  - ④ 전쟁은 이미 끝나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데 독수리가 날아와서 깨끗한 시체는 먹지 않고 썩고 마른 시체만 먹는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독수리는 자기의 깃털로 시체를 보라고 한다.
  - ⑤ 독수리 깃털로 시체를 보자 돼지, 개, 고양이, 당나귀, 암염소, 개구리 등으로 보인다. 까마귀는 다음 생애에 인간으로 태어날 자만을 먹는다고 하고 깃털 하나를 뽑아 준다.
  - ⑥ 집에 돌아와서 깃털로 모친을 보자 모친은 암염소, 아버지는 수소, 아내는 암개이다. 아내를 쫓아내고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시장에 간다. 사람들이 모두 짐승으로 보이

11) 岡田充博(2008) 앞의 논문, p.23.

는 가운데 차마르의 딸이 사람으로 보여 구혼한다.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자 아버지의 눈에도 차마르의 딸이 사람으로 보여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sup>12)</sup>

- 12) In a certain village lived a Baiga with his wife and only son. All day long the boy used to go hunting, and his wife used to quarrel with him. So at last he said, "I can't stay here, for I can't leave the house without being troubled by my wife. So I shall go to the war, and I'll die there." He refused to listen to his family, and went away to fight.

When he reached the battle-field, he first took a bath in the river, and said, "How I wish I could get some food. "There was a *deo* there who heard him, and it turned into a crow and flew up and away to where a girl was cooking. The crow became a cat, and stole some bread. Then it became a crow again, and flew off to the boy and gave him the bread. The boy thought, "God has sent me food." The crow sat in front of the boy who gave it a bit, and then a dog came and he gave it another bit, and he had half for himself.

Then he went to the battle-field, but the war was just over and everyone was dead. The boy hid under the corpses. Then came Rai Gidal flying from the sky. But she didn't eat any of the good corpses, only one dried-up rotten body. When the boy came near, he said, "Why do you only eat the rotten and not the good corpses?" She said, "Come and look through my wing." The boy looked through the wing across the battle-field, and could see nothing but the dead bodies of pigs, dogs, cats, donkeys, she-goats, frogs; there was not a human being to be seen. Then the vulture said, "I only eat those who will be reborn as human beings in their next birth. That is why I don't eat all these corpses." So saying, she pulled out one of her feathers and gave it to him. He took it and went home.

There he looked at his mother through it. He saw a she-goat. Then he looked at his wife. He saw a bitch. When he looked at his father he saw a bull. Then he sent away his wife, and went to the bazaar to try to find a human being to marry.

He looked at everyone through his feather, but there was not a single human being there. At last a Chamar's daughter with shoes tied in her cloth came to the bazaar. He looked, and saw a lovely human being. So he caught her, and said he would marry her. All the people began to laugh. But he took her home, his father also looked at her and saw she was human, so they gave a tribal feast

- (2) 소마데바 밧타, 『카타사릿사가라』 수록 「나라바하나닷타 왕자의 탄생」 삽화 「신하파라쿠라마 이야기」: 이 책의 성립은 1063-1081년 사이라고 추정한다. 그 모두에서는 그 이전의 인도설화집 『부리햇 가타』를 改稿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부리햇 가타』는 현존하지 않는데 2,3세기경에 안도라왕국 때의 사람 구나디아의 저서로 여겨지나 확실치 않고 문헌학적으로 성립은 6세기 이전으로 보이고, 또한 소마데바가 이용한 것은 원본이 아니라 7세기경의 진본이라 한다.<sup>13)</sup>
- ① 바라나시(현재 베나레스)에 사는 비쿠라마 찬다 왕으로부터 충애를 받는 신하파라쿠라마가 왕에게 받은 돈이나 도박에서 번 돈을 모두 아내에게 건네지만 아내는 못났고 성질도 괴팍하여 세 아들과 함께 구박한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빈디야 산에 사는 여신을 참배하러 떠난다.
  - ② 여신이 신하파라쿠라마의 꿈에 나타나서 바라나시의 도읍에 가면 커다란 용수(榕樹) 밑에 녹주석(綠柱石)의 쟁반이 있는데 그것에 나타나는 아내의 전생을 보면 지금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한다.
  - ③ 신하파라쿠라마는 여신이 시킨 대로 녹주석의 쟁반을 얻어 안을 들여다보자 아내는 전생에 암컷 곰이고 자기는 짐승의 우두머리 사자였다. 그래서 서로 전생에 품었던 증오가 현재에 나타나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안다.
  - ④ 신하파라쿠라마는 신비한 쟁반으로 여자들의 전생을 보고 자기와 맞지 않은 사람은 피하고 전생에 암사자였던 아가씨를 찾아 부인으로 삼는다. 첫째 부인에게는 음식만을 제공하고 행복하게 산다.
  - ⑤ 아내라도 전생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서는 애증의 씨앗이 된다.<sup>14)</sup>

---

for her, and he married her, and they lived happily together. (Verrier Elwin, 'The Baiga', *Gyan publishing house New Delhi*, 2007, pp. 175-176)(岡田充博(2008) 앞의 논문, p.26)

13) 岡田充博(2011) 앞의 논문, p.33.

14) Somadeva Bhatta, Kathasaritsagara(岩本裕(1958) 「ナラヴァーハナグッタ王子の誕生」 挿話 「シンハ・パラーク라마の物語」 『インド古典説話集 カター

오카다는 이상과 같이 중국·한국·인도의 자료들을 두 차례에 걸쳐 검토하여 근원설화와 전파를 추정하였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 (속)눈썹으로 사람을 비추어 보는’ 이야기의 원화(原話)는 인도고대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전파경로는 두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인도고대설화(독수리 깃털·녹주석 쟁반) ⇒ 중국(학 속눈썹·거울) ⇒ 한국(학 깃털·호랑이 속눈썹) ⇒ 일본(이리 속눈썹)의 구도로 지역 이동에 따라 주보의 종류가 바뀌면서 일본까지 전파되어 화형(話型)을 이루었다. 또 하나의 방향은 부인의 전생을 알고는 부인을 버리고 새 부인을 얻는 모티프가 한국과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일본 설화에서는 나타나므로 인도에서 일본으로 바로 수입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고 우연의 일치라도 전승을 낳은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근원설화와 전파경로를 문헌과 구전 자료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상정하였지만 우리 설화의 경우는 『온돌야화』에 채집된 1편만을 분석한 결론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설화계통의 전승이 발견되고 있는 이상에는 전파경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오카다는 근원설화와 전파를 밝히려는 데 치중하다 보니 내용비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설화의 변이와 독자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설화와의 관계 분석이 불가분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승 자료와 기존연구업적의 정보를 교환 비교함으로써 내용적 특징, 분포, 근원설화, 전파와 내용변이 등 제반문제를 일정하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구전자료 검토

『대계』와 『한국구전설화』에서 추려낸 16편의 지역적 분포는 평북 4화, 경북 5화, 경남 5화, 전북 1화, 제주도 1화로, 남북으로 길게

---

· サリット・サーガラ(三)』岩波書店、pp.53-55.

전파하였고 평안도와 경상도에서 비교적 채집된 특징을 보인다.

16편은 ‘호랑이 눈썹’을 핵심 모티프로 하면서 각편에 따라 조금씩 내용 변화를 보인다. 그 양상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지역적 특징을 용이하게 탐색할 수 있다. 우리 설화는 대략 ‘운명바꾸기형’ ‘윤희형’ ‘열녀형’ ‘범퇴치무용담형 및 그 외’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운명바꾸기형’은 이 글 맨 처음에 든 경북 월성군 오동면 설화(자료1)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것들이다. 자료 1,2,4,5,6,8,10, 11,13,14가 여기에 속하는데<sup>15)</sup>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을 정리하면 대개 다음과 같다.

- (1) 주인공이 가난에 시달려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 호랑이에게 죽으러 가지만 호랑이는 잡아먹지 않는다.
- (2) 잡아먹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호랑이는 주인공이 사람이기 때문이고 가난의 고통을 겪는 것도 닭인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는 눈썹을 뽑아주며 보라고 한다.
- (3) 눈썹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을 비추어보자 돼지, 소, 닭으로 보이고, 집에 있는 아내는 닭으로 보인다.
- (4) 주인공은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를 찾아 살고, 아내에게도 그에 맞는 짝을 찾아주자 양측 모두 잘 살게 된다.

주인공이 가난에 찌들다가 신이한 호랑이 눈썹을 얻고 그런 후 고생의 원인이 잘못 만난 배우자에 있음을 알고 새 배우자를 찾음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펼치는 내용이다. 자료 간에는 얼마간 변화도 인정된다. 이를테면 자료6과 자료11에서는 (2) 단락에서 호랑이가 주인공에게 가난고생의 원인을 말하면서 어디의 아무개 여자를 만나라고 알려주기까지 한다. 자료1,2,4,5에서는 (3) 단락에서 주인공이 눈썹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등짐장수(또는 옹이장수·짚신장수) 부부를 만나고 그들의 고생도 배필을 잘못 만났기 때문임을 호랑이 눈썹으로 안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변화를 보이는 경

15) 자료의 순번은 참고문헌에 든 설화 번호 순서를 따랐다.

우는 그 다음의 전개가 두 형태로 진행한다. 하나는 등짐장수 부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한 방에서 함께 자다가 몰래 여자들의 잠자리를 바꿔 누명을 씌워서 아내와 등짐장수를 쫓아내고 등짐장수의 부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자료1, 2). 또 하나는 등짐장수에게 아내를 서로 바꾸자고 하여 바뀌서 사는 것이다(자료4, 5). 이처럼 '부부 짝 바꾸기'가 나타나는 것은 이 유형만이다. 또한 이 유형의 특징은 호랑이 눈썹의 주술적 힘을 통해 '참다운 사람 본성'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내용(자료2, 8, 10, 11, 13, 14)과, '부부 궁합'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내용(자료1, 4, 5, 6편)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사람의 모습을 했더라도 다 사람이 아니니 온전한 사람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나야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다운 사람을 더 표현하려는 것이다. 후자는 개(男)는 개(女)를, 너구리(男)는 너구리(女)를,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잘 산다는 제쌍의 궁합을 더 표현하려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설화 구조가 '분리와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주인공은 곤궁한 나머지 부득이 전처와 이별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인생을 개척하지만 형편이 편 후는 버린 전처(때로는 자식을 포함한 식구)를 다시 찾아 생계를 챙기거나 전처부부와 형제간을 맺어 함께 유복하게 산다는 구조이다.

'윤희형'은 호랑이 눈썹이 착한 사람의 전생을 비추고 이생의 그 사람됨은 전생의 인연에 의한 것이라는 불교적 윤희관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가진 것은 자료9이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동생 부인은 착한데 형의 부인은 흉악하여 그로 괴로움을 겪는 형이 살맛이 나지 않아 죽으러 가서 호랑이에게 눈썹을 받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식구를 보자 부인은 황소이고 제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화 제보자는 제수를 평하기를 '제수는 죽어 사람이 된 것인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착하면 죽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다.

한편 이 이야기와 전승 지역도 같고 내용도 거의 같은 것이 자료 10이다, 그러나 그 결말부가 약간 다르게 진행하여 '운명바꾸기형'이 되었다. 그 결말부에서는 형이 호랑이 눈썹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주점에 들르는데 주점의 내외가 싸움으로 난리인지라 호랑이 눈

썸으로 보자 주인양반은 개이고 그 아내는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비추어 보았더니 아내는 개이고 동생내외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점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형제간에 우애 좋게 잘 살았다는 전개이다. '운명바꾸기형'에 있는 '부부 짝 바꾸기'나 '윤희보다 사람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동일한 것이다.

'열녀형'은 호랑이 눈썹이 거울이나 용털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열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자료12와 자료16 두 편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12는 어떤 사람이 용궁에 놀러가자 용왕이 열녀를 찾거든 이 거울을 주라며 거울을 쥐서 받아가지고 인간 세상에 돌아와 아내와 어머니, 여자들을 비추어 보자 모두 남근을 몇 개씩 달고 있었다. 열녀를 열심히 찾은 끝에 어느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못생긴 여자가 열녀라서 거울을 건넸다. 그러자 여자는 용궁 아버지의 거울이라며 가지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료16은 승천에 임박한 용이 어느 사람에게 털 하나를 주며 깨끗한 여자를 찾아 그 음부의 털(설화 도중에 여의주라 하기도 함)을 구해오면 승천할 수 있다 하여 아내와 여자들을 비추어 보고 가까스로 팔 받을 때는 젊은 부인이 그에 해당하여 그 음모를 구해주자 용은 승천하였고 그 대가로 비로 비옥하게 만든 주인 없는 논을 얻었다는 것이다. 두 자료의 전개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열녀를 구별한다거나 후보의 수 여자가 동일한 관념으로 형성된 존재인 점 등이 유사하다. 각각 평안북도과 전라북도에서 채집된 지역적 간격을 보이지만 서로 교섭이 추정된다.

'범퇴치무용담형'은 호랑이 눈썹이 매의 털로 되어있고 그 털로 인간으로 둔갑한 범의 정체를 알아보고 퇴치하는 내용이다. 자료15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인공이 신이한 매의 털을 얻는 동기는 범의 피해가 심각한 마을을 구하기 위해 범을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 날개가 부러진 매를 발견하고 피를 먹으면 낫는다 하여 자기의 손가락을 찢러 피를 주고 털을 얻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늑은이로 둔갑한 호랑이를 알아보고 잡아 죽이고 호랑이 굴속에서 아버지의 뼈도 찾는다는 전개이다. 매 털 획득의 모티프에는 중국의 이상공 일화를 이용하고 있다. 주술적인 힘을 가진 후보가 동물의 털인 점과 그 털로 본성을 알아본다는 점에서는 <호랑이 눈썹>과 공유하면

서 용맹을 발휘하여 마을을 구했다는 명포수의 무용담이다.

그 외에 위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자료7과 자료3이 있다. 자료7은 중국의 이석설화를 이용하여 중국 북송 때의 역학자 소강절(邵康節, 1011-1077) 일화로 만든 것이다. 이야기 내에서 소강절은 소강결로 구연된다. 강결은 찢어지게 못살아 나무를 해서 끼니를 때우는데 하루는 산에서 날개가 부러진 학을 발견하고 날개를 고쳐주자 학이 물건을 주며 그것으로 시장에 가서 사람을 비추어 보면 술한 사람이 짐승으로 보일 테니 인간으로 보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살 길이 생긴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천지이치를 아는 소강결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구전설화 중에 <여우 구슬>이라는 것이 있다. 풍수지리에 능한 대학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이 여우 구슬을 획득함으로써 남다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계통의 설화가 사람 본성을 구별하는 학 털의 설화에 영향을 미쳐 자료7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3은 호랑이 눈썹을 획득한 사람이 눈썹으로 아내와 사람들의 짐승 모습을 알아보는 데까지는 '운명바꾸기형'과 동일하지만 새 여자와 인연 맺는 모티프는 없고 호랑이 눈썹을 가짐으로써 벌어들인 살 방도가 생긴 것으로 끝나 있다. '운명바꾸기형'에서 파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3. 일본구전자료 검토

이나다 고지의 「석화타이프-인덱스」에는 <이리 속눈썹>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 (1) 부지런하지만 가난한 남자가 가난을 비판하여 이리의 먹이가 되려고 갔는데, 어느 이리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마지막의 한 마리가 속눈썹을 주며 그것으로 아내를 보라고 알려준다.
- (2) 남자가 그 속눈썹으로 아내를 보자 소로 보이기에 아내와 헤어지고 집을 떠난다.

- (3) 밤에 숙박하게 된 부잣집에서 속눈썹으로 사람들을 보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수(鳥獸)이고 주인부부는 다이코쿠(大黒)와 에비스(恵比須)이라서 그들에게 속눈썹을 사용해 보도록 한다.
- (4) 부자가 속눈썹으로 남자를 보자 복신(福神)으로 보여서 남자는 그 집의 사위가 된다.<sup>16)</sup>

한국의 호랑이가 이쪽에서는 이리인 것이 무엇보다 차이를 보이는데 (1)과 (2) 모티프는 한국의 '운명바꾸기형' 전반부와 거의 동일하고, (3)과 (4) 모티프는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위의 내용 정리에 사용한 자료가 실린 『일본설화통관(日本昔話通観)』(2-26권)<sup>17)</sup>에서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17편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sup>18)</sup> 그 지역적 분포는 도호쿠(東北: 青森1·岩手1·宮城1·秋田1), 주부(中部: 新潟3), 긴키(近畿: 京都1·奈良2), 주고쿠(中国: 鳥取1·広島1·山口1·香川1), 시코쿠(四国: 高知1), 규슈(九州: 大分1·鹿児島1) 등 채집 화수(話數)는 그리 많지 않으나 북쪽의 아오모리(青森)에서 최남단의 가고시마(鹿児島)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구전되고 있었다. 본토(本土)의 중심인 간토에서는 채집되지 않았다.

17각편은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 변화를 보이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대략 '운명바꾸기형' '은둔형' '혼인형' '취업형' '괴물퇴치 무용담형' 및 그 외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다섯 양상의 특징을 검토하기로 한다.

'운명바꾸기형'은 한국의 그것처럼 가난한 남자가 이리 (속)눈썹을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부인을 만나 새 삶을 찾는다는 전개이다.

16) 稲田浩二(1988) 앞의 책, pp.278-279. ③의 모티프에 나오는 다이코쿠와 에비스는 일본인이 첨기는 칠복신이다.

17) 稲田浩二·小沢俊夫(1977-1998) 『日本昔話通観』 同朋舎는 1권에서 26권까지는 지역별 구전자료를 화형(話型)별로 모아놓았고, 권27은 보유편이고, 권28은 일본설화유형·색인편, 권29는 총색인편이다. 또한 연구편 1, 2가 더 있어 전31권이다. 권1은 아이누민족의 구전이고, 권27은 지역분포 기술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권-26권에 실린 자료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18) 17편에는 유화로 수록된 4편도 포함한다. 자료의 서지는 참고문헌에 정리해 두었다.

자료2, 자료4, 자료9-유화1, 자료13이 여기에 속하는데<sup>19)</sup> 그중에 앞의 두 자료 후반부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 자료2에서는 짐승으로 보이는 아내와 헤어지고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 뒤를 쫓아가서 그 집에서 일해 주고, 자료4에서는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의 뒤를 따라 갔더니 여자의 집이 솥 굽는 집으로 아침에 일어나 속눈썹으로 술을 보자 황금이라서 여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료4는 <솥구이 총각> 설화와 복합한 형태이다.

자료9-유화1은 변화가 더 심하다. 이 자료에서는 포목점의 점원이 무엇이나 알 수 있는 구슬을 관음에게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포목점 주인이 구슬의 기능을 알고 살림 못하는 며느리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고 점원이 며느리는 닭으로 보인다 하자 주인은 며느리를 내쫓고 손님 중에 벤텐(弁天様, 칠복신의 하나)으로 보이는 못난 여자를 맞아들였더니 가게가 흥했다는 것이다. 포목점 점원-주인-주인 며느리의 3자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등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렇지만 '주보를 사용하여 여자의 본성이 짐승임을 알고 본성 좋은 새 여자를 구해 잘 살게 된다'라는 핵심적인 구성은 유지하고 있다.

자료13은 일본 설화 중에서 유일하게 '부부 짝 바꾸기'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이웃한 미인 아내를 둔 가난한 사람과 보통의 아내를 둔 부자가 술을 마시며 아내를 서로 바꾸자고 하였는데 부자는 진심으로 말을 하였기에 바꾸자고 강요했다. 아내들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물은즉 그들도 바꾸자 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살맛이 나지 않아 죽으려고 산에 가서 드러누워 있는데 개 무리가 지나가지만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미개 꼬리를 잡아당기자 개가 한꺼번에 덤벼들려고 한다. 그 때에 백발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개 눈썹을 주며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의 아내 모습들을 보라고 한다. 개 눈썹에 비친 부자에게 간 여자는 담뱃대를 물고 즐기고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온 여자는 남편 찾기 위해 고용한 일꾼들의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남자는 '집안이 잘 되고 못 되는

19) 자료의 순번은 참고문헌에 든 설화 번호 순서를 따랐다.

것은 여자에게 달렸다'라는 부모의 말을 되새기고 그 후 일곱 개 창고를 가질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외모보다 집안 창기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변이된 형태이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무슨 사연으로 죽으러 가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동물의 털을 얻고 그 털로 본성 나쁜 아내를 알아보고 본성 좋은 새 여자를 찾아서 부유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전개는 '운명바꾸기형'이다. '부부 짝 바꾸기' 모티프가 있는 이 자료는 가고시마의 구전이며 후술할 한국설화와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은둔형'은 이리의 눈썹을 얻는 과정은 이나다의 (1)과 같고 그리고 얻은 눈썹으로 아내나 마을사람들을 비추어보고 모두 짐승들인 모습에 더 이상 마을에서 살기 싫어 집을 떠나거나 은둔해 버리는 전개를 보이는 것들이다. 자료3, 자료5-유화2, 자료12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자료12는 이리의 눈썹이 승냥이의 수염으로 되어 있고 수염을 얻는 과정도 조금 틀린다. 즉 어느 법인(法印, 승려의 직급 중에 최고 직위)이 사람을 잡아먹는 승냥이를 혼내주자 승냥이는 머리는 인간이지만 마음이 짐승인 자만을 먹는다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수염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법인이 수염에 비친 짐승모습의 인간들을 보고는 산에 틀어박혀 수행에 전념한다는 결말은 은둔형의 전형이다.

'혼인형'은 미혼인 주인공이 설정되고 그가 이리 눈썹(구슬)을 얻음으로써 혼인하여 생활을 반전하는 내용이다. 주인공이 이리의 먹이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게을러 사람들로 놀림을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기 때문인 것으로 한다. 자료7과 자료10 두 편이 그런 내용이다. 자료7에서는 이리가 주는 후보는 눈썹이 아니라 입으로 토해낸 구슬이다. 그리고 구슬에 비친 사람모습의 주인공을 길 가던 노인이 봄으로써 주인공은 그의 사위가 된다. 자료10에서는 이리 눈썹은 유지되되 노인이 부자로 되어있다.

'취업형'은 말하자면 주인공이 이리 눈썹으로 복신(福神)인 다이코쿠나 에비스를 알아보고 그 집에서 일하게 되거나, 반대로 주인공이 복신임(또는 사람의 본성을 가졌음)을 부자가 알게 되어 부잣집에 고용되어 먹고살게 되는 내용이다. 자료5,8,9,11이 이 유형

에 속한다. 이리 눈썹을 얻는 과정은 이나다의 (1)과 거의 동일하다. 이리 눈썹 대신에 보물(자료8)이나 구멍 있는 동전(자료11)이 사용되기도 한다.

‘괴물퇴치무용담형’은 병사로 변신한 여우를 구슬로 알아보고 물리치고(자료1), 도깨비로 변신한 원숭이를 산새의 꼬리로 알아보고 퇴치하여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무용담(자료5-유화1)이다. 구슬을 획득함에 있어서는 여우가 떨어뜨린 것을 줍고, 산새 꼬리를 획득함에 있어서는 거물에 걸린 산새를 도와주고 얻는다. 산새의 꼬리는 둥글게 해서 보면 도깨비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외에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자료는 자료6과 자료7-유화1이 있다. 둘 다 무슨 이유로 이리먹이가 되려고 가서 그 (속)눈썹을 받고 걸모습은 인간이되 속은 짐승임을 알아보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 있다. 눈썹의 주술적 힘에 주안을 둔 것이다.

## 4. 비교 분석

### 4.1 호랑이 눈썹과 이리 속눈썹

위에서 각각 검토한 두 나라 설화를 이제부터 비교해보고자 하는데 고찰함에 있어서는 인도와 중국의 자료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먼저 본 설화에서 핵심 요소인 동물의 털에 대해서다.

사람의 본성 혹은 사람의 전생대생을 비추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도구는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인도고대설화에서는 녹주석 쟁반과 독수리 깃털이다. 녹주석은 여러 빛깔을 띠고 있다고 하며 가공한 것은 귀한 보석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녹주석 쟁반의 신이한 기능은 불교에서 저승의 지옥을 비추어 전생의 선악을 드러내는 업경대(業鏡臺)의 기능과 닮아 양자 간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을 비상하는 새는 신의 정령으로 상징되어 왔는데, 개중에 독수리는 새의 왕으로 태양의 동물로 상징된다. 인도에서는 우주의

질서를 관장한다는 비슈누(Vishnu)가 타고 있는 가루다(Garuda)가 독수리의 형상이다.<sup>20)</sup> 또한 독수리는 사면의 혼이 영적인 세계를 여행할 때 타는 것으로 눈매는 날카로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sup>21)</sup> 이처럼 신의 정령으로 상징되는 새의 깃털이 영적인 힘, 주술적인 힘을 가진다는 인식은 구전에 서도 더러 발견된다.<sup>22)</sup>

중국의 문헌에서는 새의 깃털에 비해 거울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불교적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인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도교에서도 거울은 만물을 비추고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신비적이고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왔기 때문에<sup>23)</sup> 그러한 인식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다.

한국 설화에서는 거울은 1편에 불과하다(자료12). 사례는 적지만 매의 깃털(자료15)이나 용의 털(자료16)도 사용된다. 또한 안경(자료2,4,6)도 대응되는데 안경은 흐릿한 사물을 밝게 비추어주니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으로 연상했을 듯하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호랑이 눈썹이다. 호랑이는 그 맹렬함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았으니 두려우면서 동시에 신비로운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신이나 산신의 사자로까지 숭앙받았던 영물이었다. 이처럼 신성시한 존재를 등장시킨 점은 인도 설화에서 녹주석 쟁반이나 독수리 깃털의 획득에 신이 어떤 형태로든 관련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면서도 우리는 신격화한 동물이 이용된 차이를 보인다. 호랑이의 신체부위 중에서 특히 눈썹이 구연된 것은 눈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본다는 인식과 관련된 상징일 것이다.

일본 설화에서는 이리의 (속)눈썹이 이용되고 있다. 이리는 일

20) 뤼 브느와 저, 윤정선 역(1984) 『징표, 상징, 신화』 탐구당, pp.69-70.

21)ジャン ボール・クレベール著, 竹内信夫・柳谷巖・西村哲一・瀬戸直彦・アラン 로シェ訳(1992) 『動物シンボル事典』大修館書店、p.375.

22) 이를 테면 알렉산드르 아파나세프가 엮은 『러시아 민화집』에 실린 <가장 근사한 새, 빛나는 매의 깃털>은 매의 깃털이 매로 변하기도 하고 왕자로 변하기도 하며 아가씨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이다.(서미석 옮김(2004) 『러시아 민화집』 현대지성사, pp.946-955)

23) 福永光司(1987) 『道教における鏡と劍-その思想の源流-』 『道教思想史研究』 岩波書房、pp.1-69.

본어로 오카미(狼おおかみ)라 하여 신을 말하는 오카미(大神おおかみ)와 발음이 같아 신으로 대응되기도 한다. 이리도 최대 포식 동물로서 두려운 동물인 동시에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 무사시미 타케 신사(武藏御嶽神社, 도쿄도 오메시東京都梅市에 있음)의 말사인 오쿠치마가미사(大口眞神社)나 미쓰미네 신사(三峯神社, 사이타미현 치치부시埼玉縣秩父市에 있음)에서는 신의 사자로 안치되어 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인간의 본성을 알고 액을 막고 화재나 도적의 재난을 지키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이처럼 신적 영물로 상징되어 온 이리 더구나 그 (속)눈썹으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본다는 인식은 한국의 것과 동일하다. 그 외에 사례는 많지 않으나 구슬(자료1), 금색구슬(자료7), 구멍 난 동전(자료1, 이야기 도중에 거울로 구연됨), 승냥이의 수염(자료12)이 대응된다.

#### 4.2 내용 비교

주술적 도구의 형태가 바뀌면서 ‘사람의 본성 또는 사람의 전생 내생 모습을 비추는’ 모티프는 한 이야기의 핵심이 되거나 하나의 모티프로 삽입되면서 다채로운 내용으로 만들어져 전해오고 있다.

『태평광기』의 이상공 일화는 『운급칠첩』에서는 이석이라는 실명이 언급되며 그가 출세 전에 도술을 배웠고 승산에 놀러갔다가 겪은 것으로 전한다. 상공이 승산에서 병든 학과 대화를 나누고 학 속눈썹의 신이함을 경험하고 속눈썹의 기적으로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피를 구해 학을 치료해 주었다는 일화는 ‘학 속눈썹’ 모티프를 이용함으로써 재상이 될 이석의 남다른 비범한 인물유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석의 학 속눈썹 일화가 도교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삼국유사』에 실린 학의 깃털은 오대산 월정사의 다섯 성중의 신앙과 얽혀 있다. 효성 지극한 신희거사가 육식을 즐기는 어머니를 위해 학을 살생하려다가 학이 떨어뜨린 깃털로 사람들의 짐승적인 본성을 봄으로써 살생을 면하고 몸소 넓적다리 살을 드린 출가 전의 내용과 출가 후 학의 깃털로 온전한 사람모습을 한 사람들이 사는 오대산 월

정사의 터에 인도되어 학의 화신이었던 다섯 성자를 친견했다는 내용은 거사의 효성과 신앙심에다가 학 털의 주술성을 가미하여 거사를 신이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온돌야화』에 실린 이야기는 불교나 도교적인 성격을 탈피하고 또한 비범한 인물형상 설화가 아닌 민간설화로 전한다. 호랑이가 증으로 변신하여 나타난 것은 그 야생적 포악성을 감추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 나그네가 여행길에서 증으로부터 속눈썹을 받는데 그 속눈썹에 비친 모내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토끼·양·돼지·말·소이고 증도 또한 호랑이었다는 전반부의 내용은, <호랑이 눈썹> 설화에 이용된 모티프와 동일하면서도 나그네의 신이한 경험담이 되어 있다. 이 신이한 경험담은 후반부에서는 호랑이가 잡아 먹으러 가는 강아지가 나그네의 질너임을 알고 호랑이한테 목숨 구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질너를 구했다는 호랑이의 원조담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음에 중국의 거울에 얽힌 자료를 훑어보자.

『서경잡기』에서는 선제(宣帝, 서한 제7대 황제, 재위기간 B.C. 74-B.C.49)가 인도에서 보내온 거울의 덕택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고 황제까지 올랐는데 그 거울은 예부터 요괴나 마귀를 비추고 몸에 지니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전해지는 보물이었다고 했다.<sup>24)</sup> 『포박자』에서는 도인(道人)이 도술을 연마하기 위해 심산유곡에 들어갈 때 지름 아홉 치 이상의 거울을 소지할 것을 적어놓았는데 그 이유는 생물이 나이 들면 인간으로 변하므로 거울은 그 본모습을 드러내줘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25)</sup> 『추등총화』에서는 한 농부가 밭에서 우연히 한쪽은 맑고 한쪽은 흐린 낡은 거울을 캐내어 그것으로 밭에 있는 소들을 비추어 보았더니 소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가 곧 당나귀로 변하기에 괴이하여 돌로 거울을 부숴버렸다고 했다.<sup>26)</sup> 『능개재만록』에서는 홍주

24) 林東錫 訳註(2009) 『身毒国宝鏡연도국의 보물거울』 『서경잡기』 卷一, 동서문화사, p.610.

25) 本田濟·沢田瑞穂·高馬三良 訳(1974) 『抱朴子 卷一七 登涉』 『抱朴子·列仙伝·神仙伝·山海経』(中国古典文学大系 第8卷)、平凡社, p.90.

26) 岡田充博(2011) 앞의 논문, p.35.

(洪州, 강서성江西省)의 좌사이참군(左司理參軍)이 된 왕적(王迪)이 어느 도사가 보여준 거울에 성관(星冠)을 쓰고 우피(羽帔, 깃털로 만든 주로 신선이나 도사가 어깨에 걸치는 옷-필자 주)를 입고 있는 자기의 전생을 보고 사념으로 속세에 떨어진 것을 알고 관직을 버리고 부인과 은거하였다고 했다.<sup>27)</sup> 한편 『태평광기』의 송자현 일화는 벽에 짐승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거울을 돌려 그 사람의 전생을 말하며 미혹하여 참수형을 당한 이야기이다.<sup>28)</sup> 『자불어』에서는 상담(湘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도시)에 경수(鏡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사람의 전생, 이생, 내생을 비춘다는 유래담을 적어 놓았다.<sup>29)</sup>

이상에서 든 자료들은 모두 학 깃털·학 속눈썹·호랑이 속눈썹·거울 등이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의 전생을 드러낸다는 모티프를 이용하거나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호랑이 눈썹>의 한일 유형과는 크게 다르다. 한일 설화는 인도 설화에 더욱 근접한데 이제부터 ①바이가족의 전승과 ②신하파라쿠라마 이야기의 구성을 정리해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비교는 앞에서 검토한 유형 중 자료가 비교적 많은 ‘운명바꾸기형’부터 행한다. 그러면 나머지 형의 변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인도 두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부부의 갈등으로 주인공이 가출한다(죽으러 간다).
- (2) 주인공이 다다른 곳에 신의 구원이 있다. 혹은 후보를 주는 증여자가 출현한다(때로는 증여자는 후보의 신이 한 기능을 알려준다).
- (3) 주인공이 후보를 손에 넣는다.
- (4) 집에 돌아와서 후보로 아내나 식구, 사람들을 시험한다.
- (5) 후보에 인간으로 보이는 여자를 탐색하여 결혼한다.

27) 吳曾(1985) 『王迪照鏡見前身棄官學道』 『能改齋漫錄』 卷十八 中華書局, p.440.

28)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2004) 『태평광기』 권제285 환술2 송자현(宋子賢), 학교방, pp.327-328.

29) 手代木公助 訳(2010) 『子不語』 第二十卷(東洋文庫 794)、平凡社、p.320.

(1) 단락에서는 ①과 ② 설화 모두 부부의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집을 나오는 경위가 이야기된다. ①의 남편은 사냥에 미쳐 그로 인해 부부간에 싸움이 끊이지 않자 전쟁터에 죽으러 간다. ②의 남편은 가정에 성실하지만 부인의 성질이 괴팍하여 구박하는 바람에 이를 피해 산 여신을 참배하러 간다. 이 단락의 한일 설화에서는 남자는 빈곤 탓에 죽으러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가난으로 부부의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빈곤은 민간들이 겪는 가장 잔혹한 고초로 한일 설화에서는 그런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단락에서는 주보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①에서는 주인공이 죽으러 전쟁터에 와서 썩고 마른 시체만을 먹는 독수리를 목격한다. 독수리는 내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만을 먹는다 하고 자기 깃털의 신이한 기능을 말하며 죽은 시체를 보라고 한다. ②에서는 빈다야 산에 참배한 주인공의 꿈에 신이 나타나서 녹주석 쟁반 있는 곳과 신이한 기능을 알려준다. 한일 설화도 이 단락에서는 호랑이(이리)에게 죽으러 간 주인공이 호랑이한테 잡아먹지 않는 이유를 듣고 또한 뽑아주는 눈썹의 기능을 들으며 사람들을 시험해보라는 가르침도 받는다. 이렇듯 주인공이 삶에 싫증을 내고 집을 나와 신이한 존재를 만나고 그로부터 주보의 기능을 듣고 얻는다는 구성이 인도 설화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서 인도 설화와 다른 한일의 공통된 특징도 보인다. 주인공의 고단한 삶의 원인이 닭의 본성을 가진 아내 탓으로 하는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호랑이(이리)가 (속)눈썹의 기능을 알려줄 때 '전쟁 혹은 내생의 모습을 비춘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운명 바꾸기형'이 불교적 윤회관을 바탕으로 했다가보다는 사람이 본디 가진 심성 자체를 문제 삼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3) 단락은 주인공들이 독수리 깃털과 녹주석 쟁반을 얻는 장면이다. 이 주보들을 손에 넣음에 있어서는 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한일 설화에서는 주보를 손에 넣는 데는 신격화된 동물이 조력한다. 주보로는 동물의 (속)눈썹을 이용하고 있다.

(4) 단락에서는 주인공이 집에 돌아와서 주보로 식구와 사람들을 비추어보는 내용이 전개된다. 다만 ②에서는 귀가하는 내용은

없고 쟁반으로 부부의 전생을 본 후 바로 본성에 맞은 종족의 여자를 찾아나서는 것으로 되어있다. ①의 독수리 털은 시체들의 내생을 비추고 ②의 녹주색 쟁반은 부부의 전생을 비추는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②에서는 쟁반에 비친 남편과 아내의 전생이 서로 적대적 관계(사자/암컷 곰)로 그로 인해 이생에서 싸움이 일어남을 알고 망념을 버린다는 윤회관이 강하게 비친다. 한일 설화에서도 이 단락의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 특히 ①에서 주인공이 독수리 깃털로 아내와 식구를 본 후 시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비추어 보는 행위는 흡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후보에 비친 아내들의 모습이다. ①에서는 암캐이고, ②에서는 암컷 곰이다. 우리 설화에서는 대부분 암탉이고, 일본 설화에서는 암탉과 암소이다. 암캐의 설정은 남편의 사냥에 사사건건 싸움을 거는 아내의 시끄러운 성질이 개의 습성과 닮아서 이용한 듯하다. 암탉의 설정도 비슷한 연상으로 남편이 성실하게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탓을 아내의 먹는 습성으로 보고 그 습성과 닮은 닭이 발상된 것이다.<sup>30)</sup> 암소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5) 단락에서는 남편이 짐승의 본성을 가진 본처를 버리고 사람의 본성을 가진 새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①과 ②의 구성이 똑 같은데 새 배우자와의 결합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자격에 차이를 보인다. ①에서는 사람으로 보이는 불가촉민의 딸에게 구혼하여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지만 본성이 사람이므로 개의치 않고 결혼한다. ②에서는 전생에 종족의 차이로 적대적 관계였던 아내 대신에 같은 종족인 새 여자를 맞이한다. 한국 설화에서는 ①과 ②의 경우가 모두 나타난다. ①의 경우는 ‘참된 사람 본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설화에서, ②의 경우는 ‘부부 궁합’의 중요성을 말하는 설화에서이다. 일본 설화에서는 ①의 경우만 보인다.

이상에서 비교한 대로 인도 설화와 ‘운명바꾸기형’은 구성에 있

30) “당신의 집에는 달이 많이 생겨서 암만 벌어도 달이 다 먹어 버려서 가난해데서 苦生하구 있다.”(한국 자료14, p.175), “네 처는 암탉이라서 마구 먹어치우니 가난한 거다.”(일본 자료2, p.483)

어서는 거의 동일하고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설화에 표출되는 주제는 인도 설화에서는 윤회전생(輪廻轉生)이 바탕이 되어 있다. 한일의 '운명바꾸기형'에서는 전생내생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서 아내본성이 짐승모습인 것은 불교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사람다운 사람을 문제 삼으려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운명바꾸기형' 일부에서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부는 각기 제짝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게 산다는 '부부 궁합'의 문제로 비약한 양상을 보인다. 이 점은 일본 설화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검토해 오면 운명바꾸기형이 이 설화의 일반형이고, 나머지 유형들은 그 변이형이거나 다른 경로의 전승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 설화에서는 윤회형(1화), 열녀형(2화), 범퇴치무용담형(1화) 및 그 외(2화)가 있었다. 윤회형은 유일하게 불교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도 설화가 유입되어 변하였다고 보이고 변화 과정에서 형제담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열녀형은 유교문화에서 생겨날 법한 내용인데 겉모습과 속모습을 가리는 주보의 기능에 있어서는 '운명바꾸기형'과 같으면서도 용궁에서 얻은 보물 이야기 같은 내용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전승을 달리하는 계통인지 아니면 생식기를 이용한 소화(笑話) 같은 것과 어울려 파생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범퇴치무용담형'은 명포수의 무용과 이석 일화가 복합한 파생담이다. 그리고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2편의 자료 중 자료7은 이석 일화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자료3은 '운명바꾸기형'에서 호랑이 눈썹의 효능이 생계 수단이 된다는 내용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취업형'과 닮았으나 서로 교류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변이한 것이라 봄이 옳다.

일본 설화는 은둔형(3화), 혼인형(2화), 취업형(4화), 괴물퇴치무용담형(2화) 및 그 외(2화)가 있었다. 은둔형은 '운명바꾸기형'에서 결말이 불교적 내용으로 변한 것이다. 17편 중 3편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일본형도 불교성을 벗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혼인형도 '운명바꾸기형'에서 결말에 미혼인 남주인공이 부잣집의 사위가 된다는 일본 독자적인 내용으로 전개한 것이다. 취업형도 '운명바꾸기형'에서 결말에 이리 눈썹으로 생계를 해결할 거처를 구한다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특히 취업형에서 생계를 해결할 곳이 복신

의 집인 것은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뿌리박고 있는 복신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괴물퇴치무용담형은 본 설화의 계통이라기보다 『서경잡기』나 『포박자』의 기록에 더 가깝다. 그 외에 이리 눈썹을 가짐으로써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자료 6과 자료7-유화1은 '운명바꾸기형'에서 이리 눈썹의 신이한 기능을 주안으로 한 내용으로 변한 것이다.

### 4.3 설화 전파

지금까지 비교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 유입된 경로를 재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사람의 본성 내지 전생이생의 모습을 알려주는 주보이야기는 『태평광기』 기록 이전에 인도의 바이가족 전승이나 『카타사릿사가라』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인도설화는 어떤 경로로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하였는가? 이에 대해 오카다는 두 경로를 추정하였었다. 하나는 인도 → 중국 → 한국 → 일본의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인도에서 바로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경로는 그 스스로도 확정하지 못하고 우연의 일치라도 전승을 낳은 배경이 있을 것으로 봤다. 첫 번째로 추정한 경로에 대해서는 중국대륙에도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의 탐색과 결혼' 모티프가 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유보될 수밖에 없다. 혹은 인도에서 한국으로 직수입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럴 경우 유입과정에는 불교서적 같은 경로가 있었을 것이다.

인도에서 일본으로 직수입되었다는 오카다의 두 번째 추정은 『은돌야화』 기록 외의 우리 구전을 알지 못한 채 이끌어낸 추론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동일한 유형설화가 채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전파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 근거로는 먼저 한국 설화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부 짝 바꾸기' 모티프가 가고시마의 자료에서 발견된다는 점, 둘째로 인도 설화에서 다루는 전생내생의 인연설이 한일 설화에서는 후퇴하고 사람 본성을 문제 삼는 내용으로 변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역측을 더

해 보면 한국 설화가 일본의 남단 지역으로 건너가 북상하면서 '부부 짝 바꾸기' 모티프가 사라지고 그 지역의 생활습관이나 신앙에 맞게 이리 (속)눈썹 설화로 변화해 간 것이 아닌가 한다. '운명바꾸기형'이 한국에 비해 전승이 적고 은둔형, 혼인형, 취업형 같은 변이형이 나타나는 양상은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 5. 결 론

〈호랑이 눈썹〉 설화는 표면적인 내용은 응당 희한하게 얻은 호랑이 눈썹의 주술적 힘으로 고단한 인생을 극복하고 유복하게 사는 것인데, 이면적인 내용은 참된 본성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야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한다. 설화 속에서 말하는 참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란 한국의 경우는 효성스럽고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는 정직하고 외모보다 가내에 성실한 것을 말한다. 그런 성품을 갖고자 하고 그런 성품을 가릴 줄 아는 혜안을 갖기를 원했던 두 민족의 생활철학이 이 설화에는 담겨있다. 그러면서 사람 본성을 가진 쪽은 남편이고 아내 쪽은 짐승 본성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라 사람다운 자질도 여성에게 요구되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한 설화임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족이 즐겨 향유해 왔고 지금도 매스미디어로 재생산되고 있지만 설화내용 이외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호랑이 눈썹〉에 대하여 내용적 특징, 분포, 근원설화, 전파 그리고 내용변이 등을 해명해 보려고 했다. 그를 위해 인도나 중국의 유사 설화를 돌아보며 우리 설화와 동일 유형인 일본 설화와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 참고문헌

## 1. 자료

<한국구전자료>

임석재(1987-1993)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전21권, 평민사(임석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1988) 『한국구비문학대계』 전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대계).

자료	제목	채록지역	권수	쪽수
1	백인(百人)재의 범눈썹	경북 월성군 의동면	대계 7-2	184-197
2	사람이 동물로 보이는 범이 준 안경	경북 월성군 의동면	대계 7-2	302-306
3	호랑이 눈썹의 효험	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계 7-4	194-195
4	궁합이 생긴 원인	경북 군위군 의흥면	대계 7-12	545-547
5	전생의 인연 찾아서 잘 산 이야기	경북 구미시	대계 7-15	157-159
6	이상한 안경	경남 진양군 수곡면	대계 8-3	190-194
7	소강절 선생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계 8-5	1037-1040
8	노름장이의 황재	경남 밀양군 상남면	대계 8-7	403-411
9	착한 제수	경남 김해군 상동면	대계 8-9	1021-1024
10	호랑이 눈썹이 맺어준 인연	경남 김해군 상동면	대계 8-9	1049-1050
11	신기한 호랑이 눈썹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대계 9-3	664-667
12	이상한 거울	평북 정주군 고덕면 덕원동	임석재 권1	154-155
13	범의 눈썹	평북 의주군 고관면 당곡동	임석재 권1	155-156
14	이상한 호랑이 눈썹	평북 초산군 판면	임석재 권1	175-176
15	명포수와 이상한 매의 털	평북 철산군 참면 용당동	임석재 권2	66-68
16	여의주	진북 무주군 무주면 삼리	임석재 권7	229-231

<일본구전자료>

稲田浩二・小沢俊夫(1977-1989) 『日本昔話通観』 2卷-26卷、同朋舎.

자료	제목	채록지역	권수	쪽수	유화
1	여우 구슬(狐の玉眼鏡)	青森県南津軽郡常盤村水木	2	352	·
2	이리 눈썹(狼の眉毛)	岩手県遠野市(旧上閉伊郡土淵町)	3	483	·
3	이리 눈썹(狼の眉毛)	宮城県本吉郡志津川町十日町	4	333-335	·
4	이리 속눈썹(狼のまつげ)	秋田県平鹿郡増田町亀田	5	428-429	·
5	이리 눈썹(狼のまゆげ)	新潟県長岡市西藏王町	10	526-528	2
6	이리 속눈썹(狼のまつ毛)	京都府中郡大宮町	14	220-221	·
7	이리 구슬(狼の玉)	奈良県北葛城郡広陵町	15	123-124	1
8	이리 안경(狼の眼かね)	鳥取県倉吉市福富	17	411-414	·

9	이리 속눈썹(狼のまつ毛)	広島県双三郡作木村上作木	20	375-376	1
10	이리 눈썹(狼の眉毛)	香川県仲多度郡多度津町佐柳島長崎	21	338-339	·
11	동전 구멍(錢穴の眼がね)	高知県安芸市上尾川	22	310-311	·
12	수도승의 수염(山犬のひげ)	大分県西国東郡真玉町	23	351	·
13	개 눈썹(犬の眉毛)	鹿児島県大島郡徳之島町徳和瀬	25	573-574	·

<그 외>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2004) 『태평광기』 권460 학(鶴), 학고방, p.296.  
 김원중 옮김(2008) 『삼국유사』 제3권 탐상 제4, 민음사, pp.403-405.  
 서미석 옮김(2004) 『러시아 민화집』 현대지성사, pp.946-955.  
 林東錫 訳註(2009) 『身毒国宝鏡연도국의 보물거울』 『서경잡기』 卷一, 동서문화사, p.610.  
 岩本裕(1958) 『ナラヴァーハ ナグッタ王子の誕生』 『インド古典説話集 カター・サリット・サーガラ(三)』岩波書店, pp.53-55.  
 手代木公助 訳(2010) 『子不語』 第二十卷(東洋文庫 794)、平凡社、p.320.  
 本田濟・沢田瑞穂・高馬三良 訳(1974) 『抱朴子』 卷一七 登涉, 『抱朴子・列仙伝・神仙伝・山海経』(中国古典文学大系 第8卷)、平凡社、p.90.  
 鄭寅燮(1983) 『温突夜話 韓国民話集』 世界民間文芸叢書 別巻、三弥井書店、pp.121-123.  
 呉曾(1985) 『王迪照鏡見前身棄官学道』 『能改齋漫録』 卷十八, 中華書局, p.440.

2. 논저

김정희(2012) 『설화 <호랑이 눈썹>과의 비교를 통해 본 영화 <헨콕>의 서사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2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pp.227-253.  
 \_\_\_\_\_(2010) 『'배우자말치기서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문학치료프로그램 - 부부관계의 지속과 단절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66.  
 뮌 브느와 저, 윤정선 역(1984) 『징표, 상징, 신화』 탐구당, pp.69-70.  
 정운채(2008)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계레이문학』 제14집, 계레이문학회, pp.361-397.  
 \_\_\_\_\_(2008) 『부부서사진단도구를 위한 구비설화와 부부서사의 진단요소』 『고전문학과 교육』 제15집, 고전문학교육학회, pp.191-243.  
 \_\_\_\_\_(2009) 『부부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서사와 문학치료』 제1집,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pp.305-362.  
 \_\_\_\_\_(2009) 『자유연결형 부부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과 문항분석』 『서사와문학치료』 제2집,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pp.293-324.  
 稲田浩二(1988) 『昔話タイプ・インデックス(狼のまつ毛)』 『日本昔話通観』 第28巻、同朋舎、pp.278-279.  
 \_\_\_\_\_(1993) 『日本昔話通観 研究篇1 日本昔話とモンゴロイド』 同朋舎、pp.100-101.  
 \_\_\_\_\_(1998) 『日本昔話通観 研究篇2 日本昔話と古典』 同朋舎、p.110.  
 岡田充博(2008) 『日本昔話「狼のまつ毛」の原話 - 『逸史』・『三国遺事』・インドの伝承』

- をめぐって- 『新しい漢字漢文教育』第24号, 全国漢文教育学会, pp.16-27.  
\_\_\_\_\_ (2011) 「睫毛と鏡 - 前世・来世の姿を見る呪宝 -」 『名古屋大学中国語学文学  
論集』23輯、名古屋大学中国文学研究室、pp.27-39.  
福永光司(1987) 「道教における鏡と劍 - その思想の源流 -」 『道教思想史研究』岩波書房、  
pp.1-69.  
ジャン ボール・クレベール 著, 竹内信夫・柳谷巖・西村哲一・瀬戸直彦・アラン ロ  
シェ 訳(1992) 『動物シンボル事典』大修館書店、p.375.

성 명(한 글) : 박 연 숙

(한 자) : 朴 蓮 淑

(영 문) : Park, Yeun-Sook

논문영어제목 :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iger`s  
Eyebrows Folktales

소 속 : 계명대학교 교양학부

E-mail : phasu@kmu.ac.kr

투 고 일 : 2014년 3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9일